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소식

11월 CEO와의 만남 한국공학한림원 11월(제129회) CEO포럼 참석결과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는 'CEO와의 만남'을 통해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에게 일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국내 최고의 CEO와 만남으로써 그들의 성취수준을 높여주고, 동기와 열정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 주제 | 중국의 자동차 산업 어디까지 왔나

| 연사/진행 | 조원장 현대모비스 부사장 /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이사

| 일시/장소 | '11. 11. 28(월), 18시 / 한국기술센터 21층 '기술인 클럽'

| 학생참석자 | 고양 정발중학교 3학년 신수련(KAIST 영재교육원, 심화과정) 부산 분포고등학교 3학년 민덕연 (포스텍 영재교육원, 17)

| 주요 활동 | • 만찬 사회자가 공지사항 전달 시 차세대영재기업인 소개
• 만찬 및 CEO와의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 형성 및 조언 청취
• CEO 특강 청취 및 토론 참석

| 참가 결과 | • 민덕연 학생은 만약 전기차가 지금의 예상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면,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지 않는 FCEV를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함
• 신수련 학생은 조원장 부사장님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기도 함

향후 계획 CEO포럼 경험은 교육생에게 기업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포럼 참여 기회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생 CEO포럼 참석 현장모습



학생 착석 모습



기념촬영 모습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콜로키움 영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초교과형 발명영재 육성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영재종합서비스에 대한 학문적 고찰과 발명영재교육으로의 확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이론적 타당성 검토와 발명영재교육의 지향점 탐색하고자 콜로키움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11. 12. 12 (월), 09:00~17:00 / 롯데호텔 (36층, 벨류스 스위트)

| 주관/주최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사단법인)영재학회

| 참석기관 및 인원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KAIST·POSTECH 교육원 관계자,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 프로그램 내용

시간	프로그램
09:50~10:00	개회 및 개회사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10:00~10:40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소개 : (발명)영재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life coaching 모형
10:40~12:00	세션 I 발표 및 토론 : Successful Creativity - Creative climate, Creative attitude and creative thinking (CAT)
12:00~13:30	오찬
13:30~15:00	세션 II 발표 및 토론 : 다양한 영역에 대한 영재 지원사례 소개 -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중심으로
15:00~15:20	휴식
15:20~16:20	세션 III 발표 및 토론 : 발명영재교육 체계화 방안 - 발명영재교육의 현주소 및 발명영재에 대한 다원적 지원방안
16:20~16:40	종합정리 및 폐회



이포세

[IP世]; IP세상, 세상을 세움

2011년 12월호 [통권 제12호]

특집 칼럼

이창호 박사의 생각에너지
미래경영을 논하다

영재 칼럼

우리아이 창의성 지켜주기

심리·정서 칼럼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3)

발명·지식재산 칼럼

다시 생각하는 문제와 문제해결

역량 칼럼

진로설계 능력

특집칼럼	이창호 박사의 생각에너지, 미래경영을 논하다	03
센터칼럼	영재 칼럼 우리아이 창의성 지켜주기	06
	심리·정서 칼럼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3)	08
	발명·지식재산 칼럼 다시 생각하는 문제와 문제해결	10
	역량 칼럼 [1.자기개발능력] 진로설계 능력	12
교육원 소식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소식	14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소식	15



이 힘이 무엇인지 나는 정의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이 힘은
꿈을 정확히 알고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만 존재한다는 것뿐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1847.3.3 ~ 1922.8.2)

영국 태생의 미국 과학자·발명가, 벨 전화회사 설립자

수기 공모 및 의견 수렴

〈앞세〉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로 보내주십시오. 〈앞세〉에 대한 의견이나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환영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기 분량 : A4 용지 한 페이지

접 수 처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박기문 전문위원

tel. 02)3459-2743, email. kmpark@kipa.org web : www.ip-gifted.org/cgye

이창호 박사의 생각에너지, 미래경영을 논하다

통섭시대에 걸 맞는 ‘적자생존(適者生存)적 협상’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간은 강과 같다. 물은 어느 강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도 변함없다. 그러나 강은 큰 강이 있는가 하면 좁은 강도 있으며 고여 있는 물이 있는가 하면 급류도 있고 맑은 물과 흐린 물, 차가운 물과 따스한 물도 있다. 우리 인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릇의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또한 캐릭터(character)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역할과 역량도 다릅니다.

작금의 세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급변하고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이자, 역량(力量)의 시대입니다. 더불어 모든 종교, 문화, 기술, 인종, 학문, 기업, 사회, 국가 등이 존재하고 뒤섞여 상호 공존하고 있는 다양성의 시대이며, 그 다양성 속에서도 서로 비슷한 성질의 것들끼리, 설령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일치된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통섭(統攝)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섭은 이제 시대적인 요구가 되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다시 한 번 회상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20세기가 모든 것을 쪼개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하던 시대였습니다. 다음 세기는 모든 것이 섞여 하나로 이어지는 통섭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인수합병(m&a) 그리고, 다수의 회사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큰 회사로 합병하는 퓨전(융합-fusion)이 그러하며, IT, 가전, 패션, 철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컨버전스(convergence)가 그러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국가 간의 국경이 없어지고 무역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념의 개념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이제는 하나만 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옛말에 “성공하려면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우물만 파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한 우물만 파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설령 한 우물을 파더라도 깊게만 팔 것이 아니라 넓고 깊게 파야 합니다. 그래야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깊게만 파는 것은 좁은 시각에 사로잡힌 "나만의 좁은 세상" 즉 우물 안 개구리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만능인, 멀티플레이가 되어 두각을 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섭의 시대, 새로운 트렌드에 부응하고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없는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들어, 한반도에 부는 바람(風)이 거셉니다. IT산업계는 폭발적 성장가능성을 지닌 '스마트바람', 문화계는 세계적인 '한류바람', 정치계는 안철수 출마설로 불거진 '안철수 바람'에 이어 'FTA 협상'을 둘러싼 역발상적 바람까지.

우리는 이러한 바람을 어떻게 순풍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면에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로 상징되는 스마트 방통융합기술과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 기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k-pop에 대한 세계인들의 기대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바람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IT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은 스마트바람을 순풍으로 만들기 위해 IT융합, 방통융합산업육성방안과 기술 및 콘텐츠 개발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문화산업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은 한류바람을 순풍으로 만들기 위해 한류콘텐츠 육성방안과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정치계는 안철수 바람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와 국가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마다 순풍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저마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와 길을 찾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는 4년간 허송세월 보낸 것도 모자라, 이번엔 미국이 여야합의로 전격 통과시키면서 ISD 논쟁이 가열되고 급기야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결과물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선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독 통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또 한쪽에서는 "ISD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단독 통과시켰으니 무효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쌍방이 자기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불합리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이란, 반드시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협상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협상이란 서로 이익을 많이 보려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국익을 위해서였다'면, 미국은 손해를 보면서도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할 수 있으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FTA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협정이라고 극한투쟁을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위험한 내용이 있었다면 사전에 문제를 공론화해서 양쪽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와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분명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익 보는 것이 있으면 상대도 상응하는 이익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분야가 있다면 상대방도 손해를 보는 분야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손해와 이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장전문의원인 로버트 엘리엇(Robert S. Eliot)은 그의 저서를 통해 "짜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으면, 흐르는 대로 자신을 맡겨 흐르게 하라" 즉 "피할 수 없으면 그 일을 즐겨라"라고 표현했다. 어쩌면 작금의 시대를 반영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육강식(弱肉強食)적 패턴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존속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강국에 짓눌려 할 말 못하는 상황. 아마도 사소한 관계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강자가 되서 약자를 먹어버린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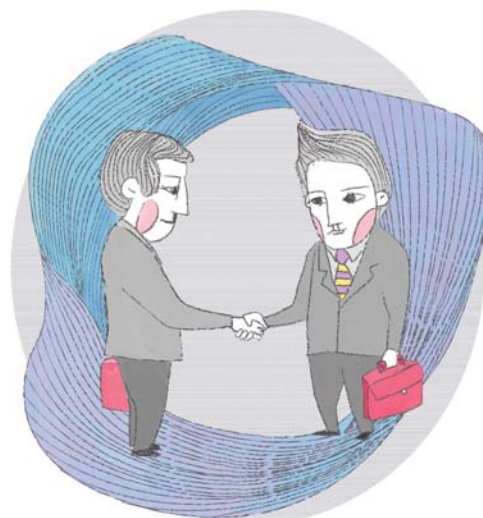
것, 때때로 약자가 되서 강자에게 먹히는 쾌감 또한 꽤나 쓸쓸하지 않을까하는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서로간의 마찰로 인한 갈등과 대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자생존(適者生存)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간혹 적자생존을 약육강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씹쓸이 하는 승자독식을 적자생존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협상에 있어서든 '꼭 이겨야한다'는 식으로 흑백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글의 법칙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어필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협상은 좀 다릅니다. 적자생존적 협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자생존적 협상이란,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갈등



상황을 좀 더 현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움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협상법'이어야 합니다. 언

뜻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 여러 가지 대안과 거래 조건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한발 물러서고, 이어 한 발 나가는 방식으로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조차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자생존적 협상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어린이 새끼손가락의 마디만한 작은 바퀴벌레가 약 9억만년 살아온 것처럼, 반대로 거대공룡은 절대 강자였지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지 못하고 멸종되고 말았던 것처럼,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처럼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처럼,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이메일로 주고받는 일이 보편화 됐으니 적응을 넘어 활용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맙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었지만 살아남은 것은 강자가 아닌 어떠한 환경이든 발 빠르게 적응했던 생명체만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불멸할 것 같던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 거대한 폭식자로 군림할 것 같았던 공룡이 화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듯,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 적당히 구슬려 가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칼은 칼집에 들어 있을 때, 값어치가 높지 막상 빼어 다 보여주면 의미가 축소되듯 무한 경쟁사회인 만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상대에 대해 적당한 배려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게 잘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행동입니다. 이겨도 적당히 이겨야 하는 게 협상의 기본원칙인 것처럼, 결론적으로 패자에게 최소한 30%의 여지정도는 남겨 두어야 뒤탈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아이 창의성 지켜주기

아동의 타고난 창의성은 부모, 교사, 사회 및 문화 내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비판적인 부모와 교사는 창의성의 개발 및 발현을 저해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격려가 창의성 신장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지 않은 일반적인 칭찬은 오히려 창의성 신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000이 참 착하기도 하지”, 000이는 참 대단해”와 같이 특정 행동이나 생각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저 일반적인 칭찬은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잘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것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칭찬과 격려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무엇이 좋았고 어떻게 좋았는지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칭찬은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칭찬은 부모, 교사,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한 과정이어야 하며 이는 진실성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의도적인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을성(기다려 주기)

창의성 분야의 석학이신 한 교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뚜렷한 기억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참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시절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수학시험에서 30점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린 소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날도 밖에 나가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집에 돌아와 평사

와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늘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밤이 되어서야 그 수학시험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조용히 소녀를 부르셔서 구슬치기를 할 때 사용하는 구슬들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세어 보도록 말씀 하셨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했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소녀에게 매일 구슬치기 한 후 구슬의 숫자를 물어보시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하기와 빼기를 연습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소녀를 높이 안아 올려 늘 방안 천장에서 말리던 옷감 (소녀가 무엇인가 강한 일을 했을 때 받던 달콤한 보상)을 세어 보도록 하고 보상으로 몇 개를 빼어 주시고 이를 계산해 숫자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 된 예전의 소녀는 그 후 20년이 지나 자신의 딸을 키울 때 비로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셨는지를 깨닫고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매우 참을성이 부족한 어머니로 “차라치 그만 뒤라, 그것도 모르니 이런 바보야”라고 딸에게 말하는 자신을 보며 이전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조용한 믿음과 참을성을 되새기며 자녀를 기다려 주기 위해 무단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부모와 창의적 부모

부모는 좋은 부모와 창의적 부모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고 유익한 것들만 해주지만 창의적 부모는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자녀로 하여금 영감을 받도록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주위에서 모든 것을 해

결해주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모자람이나 절박함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고 고난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을 키울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 풍요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어린시기의 다양한 시도와 이를 통한 성공 과 실패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미션과 가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당장의 보상이나 이기적인(가족적 기대) 욕망을 넘어서 높은 야망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창의성 신장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며 작은 실패나 실수에 기죽지 않은 타고난 자신의 자유로움(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여기 몇 가지 작은 팁(Tips)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창의성 보호하기

● 정답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 관대한 태도

창의성은 그 본질적으로 모호성(ambiguity), 실수(making mistake), 장난스러움(being playful)과 같은 특성이 있다. 즉, 부모는 자녀의 상상력에 대해 긍정적이고 반기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날개달린 고양이나 맞춤형상으로는 맞지 않으나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만들어낸 글자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에 대해 자심감을 보이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특합니다. 특히 영재 아동들의 경우는 더 하겠지요. 만일 부모님이 고양이에게 날개를 그려 넣은 자녀의 그림을 보고 진심이 아니라 단지 이해하는 척하며 미술적 구도나 색채를 지도하려 한다면 (“아주 재미있게 그렸네.... 그런데 날개달린 고양이를 보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아이는 자신의 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 기준을 낮추기

모든 책과 장난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아이의 놀이방은 창의적 활동을 방해하는 비 창의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방을 어지럽힐 수 있는 과학 실험이나 그림그리기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행동을 자제하려 할 것이며 눈치를 보게 되고 주눅 들게 됩니다.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자녀를 조용하고 매사 정리된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활동적이고, 수다스럽고,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과 표현을 억제하도록 해 아이의 자유로운 본성(창의성)이 점점 사라지도록 합니다.

● 제대로 칭찬하기

앞에서 말한 것 과 같이 아이의 창의성을 살려주기 위해 아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의성 연구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인 Mark Runco에 의하면, 아이가 그리는 모든 그림 그 자체에 대해 칭찬하기 보다는 아이가 표현하는 독창성이나 노력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우와 ~우리 000이가 이렇게나 잘 그렸네” 보다는 “우와 ~우리 000이가 정말 재미있는 생각을 했네, 이제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 표현도 너무 재미 있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국가적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영재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 할수 있도록 하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다음의 아주 간단한 문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기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표현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창의적 업적을 이루는 진정한 창의적 인재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Children are innately inventive. Help ensure that talent isn't stifled”

이 행은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교육심리, 영재창의성 전공

helee71@kipa.org / 02-3459-2745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3)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징〉-II. 정서 영역, III. 행동 영역

지난 호에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보이는 사고영역에서의 특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호에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정서 영역과 행동 영역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정서 영역에서 보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의 특징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실패감, 죄의식, 우울, 불안, 후회감, 수치심, 분노, 낮은 자존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1)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하찮은 결함도 실패로 느끼고 수행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울에 특히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가치와 자기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자신을 책망, 비판하여 무가치감과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비완벽주의자보다 더 쉽게 우울하게 됩니다. 즉, 완벽주의 성

향이 우울과 스트레스 간의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중 모든 행동을 중요시 여기고 늘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동기가 강한 사람은 우울을 더 쉽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2) 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가능한 위협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불안을 유발하는 대상들은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시험불안을 갖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완벽성향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이로 인해 시험이라는 상황에서 강한 불안을 느낍니다.

3) 낮은 자존감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일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 이를 달성하기가 어렵지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 모든 원인을 자신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고 그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게 되기 쉽습니다.

III. 행동 영역에서 보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의 특징

개인이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정서

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역시 사고와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 및 정서의 특징들로 말미암아 강박행동, 지연행동,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행동상에서의 특징을 보입니다.

1) 강박행동

강박행동은 완벽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상의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절차나 세세하고 자질구레한 세부적 사항에 얽매이거나 사소한 것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진도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했던 높은 목표는 매우 거리가 먼 상태에서 좌절되고 마는 수가 많습니다. 강박증은 완벽성의 특징 중 실수에 대한 걱정, 행위에 대한 의심 등의 완벽성 사고와 상관이 높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지나친 야망을 품고 거의 접근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효능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2) 지연행동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보이는 지연행동은 스스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높은 수행기준을 부여하고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 중요한 타인의 높은 기대에 대한 지각과 그에 부응하기 못했을 때 겪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 과제가 가지는 의미는 성취의 기회라기

보다는 실패의 기회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루는 사람들은 과업 수행에 앞서 ‘과제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과제가 부과되었다’고 지각하여 억지로 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 화를 내는 심정으로 임하게 되고 이것이 지연이나 회피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보다는 타인, 사회적 상황이 자신에게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지각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대인관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며, 그들에게서 실수를 찾으려 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Burns(1980)에 의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타인으로부터 받을 거절을 미리 예측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명을 늘어놓거나 핑계를 대는 경향이 많으며 대인관계에서 회피적이 되기 쉽고 진솔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대개 이러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반응은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 이들은 자신이 거절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거절받지 않기 위해 더욱 완벽주의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윤성민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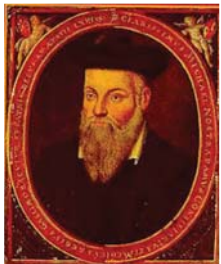
심리학 박사 / 상담심리학 전공
ysm0714@kipa.org / 02-3459-2928



다시 생각하는 문제와 문제해결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를 알지 못하거나 다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에 대하여 논리성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스트라다무스(Nostradamus)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권세부터 세계 2차 대전과 아돌프 히틀러, 달 착륙, 9.11 테러 사태까지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20년 후에 찾아올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예측한 보고서인 '유엔미래보고서'가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1503년 12월 14일 - 1566년 7월 2일)는 프랑스의 천문학자, 의사, 예언가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라틴어 이름이고 본명은 미셸 드 노스트르담(프랑스어: Michel de Nostredame)이다. 1555년에 처음 출판된, 운을 맞춘 4행시를 백 편 단위(Centuries)로 모은 《예언집》(Les Propheties)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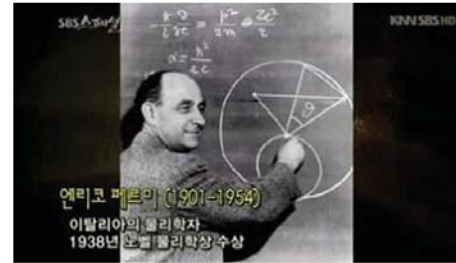
출처: 위키백과사전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소셜 테크놀로지(Social Technology)' 회사는 세계미래회의 회원들과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2020년에 다가오는 메가트렌드*와 위기를 10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유엔미래보고서 2).

* 메가트렌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미래로서, 기업이나 정부가 메가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비할 수 있다.

- ① 부상하는 아시아
- ② 세계화에서 벗어나 다시 지역화로
- ③ 고령화와 여성 주도권 시대
- ④ 물과 에너지 부족
- ⑤ 돌이킬 수 없는 지구 온난화
- ⑥ 대체에너지 개발
- ⑦ 문명 통합의 시대
- ⑧ 핸드폰의 연계된 세계
- ⑨ 책 읽기의 종말
- ⑩ 인터넷이 교사가 된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와 위기 속에서 정확한 해답을 찾아가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며, 이를 풀어나 갈 핵심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이처럼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관계 속에서 정답은 없지만, 생각하는 힘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나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르미 추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페르미 추정이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페르미 교수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낸 문제들과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무심코 지나쳤던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접했을 때 그 과정이 복잡한 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완벽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 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페르미 추정의 핵심입니다. 페르미 추정의 문제들은 대개 정답이 없기에 원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힘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재를 구하는 기업의 면접 현장에서는 페르미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미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요? <논리적 전개 과정은 아래에 있으나, 이를 보시지 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의 1일 이용객은?

우리나라 최대의 역인 서울역, 서울역은 만남의 장소, 이별의 장소, 민심의 장소 등 역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늘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편리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늘 서울역은 사람들로 인해 붐비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통로인 서울역, 서울역을 이용하면서 한번쯤 '하루에 서울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하루에 몇 명쯤 될까?'라는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서울역 하루 이용객 수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역에 전화걸기, 인터넷 묻고 답하기에 질문하기, 관련 서적 참고하기, 누군가에 물어보기 등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컴퓨터와 서적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고,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20년에 다가오는 메가트렌드*와 위기의 주제에 대하여 페르미 추정으로 전개해 보면서 2012년을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

서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가설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가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계산하고 추정치를 만들어내고 이 결과가 실제의 답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자.

1. 추정1: 서울역을 출발하는 기차는 몇 편일까?
 - 15분에 1대씩 출발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1시간이면 총 4대의 기차가 출발한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기차를 운행한다면, 하루 18시간 기차가 운행된다. 4대(1시간) × 18시간 = 72편(1일 서울역을 출발하는 기차 편수)
 - ※ 단, 무궁화, 새마을, KTX 등 열차의 종류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한 가지 종류의 기차라고 가정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2. 추정2: 하루에 운행하는 열차 편수는?
 - 출발하는 기차가 72편이면, 도착하는 열차도 72편이라고 가정한다. 1일 운행 총 편수 = 72편 × 2(출발, 도착) = 144편
3. 추정3: 1편의 기차에 승차하는 승객은?
 - 1량의 기차에는 50명의 승객이 승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1대의 기차는 평균 10량을 달고 달린다고 가정한다
 - 1대의 기차에 승차할 수 있는 최대인원 = 50명 × 10량 = 500명
4. 추정치: 1일 서울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 서울역의 총 운행편수 = 144편
 - 1편의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인원수 = 500명
 - 1일 서울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수 = 144편 × 500명 = 72,000명
5. 검증 및 비교: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한다.
 - 서울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 검색 결과 회의 자료에 의하면, 1일 이용객 수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6년 자료에 의하면 53,657명이다. 출처: 다음카페 철도 동호인
 - 추정치(72,000명) - 검색치(53,000명) = 19,000명
6. 피드백: 추정치와 검증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하고, 다시 계산해 본다.

박기문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발명영재 · 공학 교육
kmpark@kipa.org / 02-3459-2743



1. 자기개발능력

진로설계 능력



이번 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기업인역량의 새로운 관점인 직업기초능력의 자기개발능력인 진로설계 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로설계 능력'이란 자기진로의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비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이종범, 2009). 자신의 진로를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보다 장기적이고 생애에 걸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전략적이고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진로설계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다면, 자녀의 진로설계능력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진로설계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이해란 자기 자신의 내적, 외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능, 학업성취도,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내적인 측면과 신체적 특성, 주변 환경 등 외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각 직업마다 요구하는 능력과 특

성도 다릅니다.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에 종사할 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자신의 한계를 파악해야 진로목표설정에서 훨씬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자기 스스로 성찰하기, 실제 관련된 일을 체험하기, 스스로 성찰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다른 사람의 의견 듣기), 표준화된 심리검사하기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특성은 의학적 자료 또는 전문가의 소견자료를 참고하고, 주변 환경의 이해는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의 구성, 가족의 직업환경, 가족 및 친?인척의 지지 및 조언은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의 진로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둘째, 진로설계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직업세계에 대해 풍부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의미, 직업의 특성 및 종류, 직업관, 직업윤리 등을 잘 알고 있으며, 관심 분야의 직업에 대해 근무환경, 보수,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업세계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재미의 눈치럼 미시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수리의 눈처럼 미지의 직업세계와 생소한 직업세계까지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의 세계는 사회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직업이 미래에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은 20년 이후의 미래기술을 파악하여 사업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업아이템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셋째, 진로설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중?장기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단기적인 진로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자신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결정은 단순한 관심과 흥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결정됩니다. 다만,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진로계획과 준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진로결정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단기적인 진로계획은 전략적으로 변화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선택한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술적으로 끊임없이 직업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단기적인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정보 및 지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진로계획에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설계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진로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그 분야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진로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실천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



에, 그만큼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나머지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진로가 결정하지 못했다고 불안해하며 성급하게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자신의 충분한 이해, 직업세계의 정확한 이해, 주변환경(가족관계 등)의 충분한 고려를 통해 진로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윤 조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교육학 박사 / 직업교육, 환경교육 전공
yo3283@kipa.org / 02-3459-2744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은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미래통찰력, 지식재산능력,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IP-CEO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량 신장을 위한 온·오프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소개

기본과정 온라인강의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강의는 지식재산을 창출 역량 함양 및 창의적 사고 기법 학습을 목표로, 기존 구성된 특허청(IPACADEMY, NET)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 중등부의 경우 흥미유발과 다양한 발명 창의성 경험을 중시하고, 고등부의 경우 발명창의와 기업가정신이 접목된 실용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진로의 탐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차시	주 제
1	다양한 별난 물건 소개 : 발명이란 무엇인가?
2	장난감과 마술 속 과학원리
3	발명과 과학원리
4	발명 영재가 되어보자
5	발명 영재가 되어보자
6	발명세계에서 살아남기
7	지식 재산권 개요
8	특허 검색 방법
9	특허정보 활용과정 : 실전! 특허명세서 작성
10	명세서 작성 1
11	명세서 작성 2
12	발명 영재가 되어 보자



차시	주 제
1	발명 제대로 알자
2	발명아이디어 기본 착상법
3	발명아이디어 기타 착상법
4	지식재산권 기초
5	산업재산권
6	선행기술조사 개요
7	명세서 기초 이론
8	블루오션 명세서작성 기초
9	블루오션 명세서작성 심화
10	특허분쟁 대응방법
11	발명을 활용한 진로 탐색
12	발명을 활용하자

강자리뷰

- 중등부 현지수 : 지식재산권 강의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예시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제가 이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과제를 하면서 나 혼자 공에서 불편한 점, 어느 특정 집단을 잡을까, 생각하면서 이 과제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제 이상의 결과를 낳은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좋은 점수 및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고등부 황혜경 : 요즘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찾기란 참 어려움을 느껴 많은 고통을 느낀 강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편함을 꼭 찾겠다는 신념으로 임하다보니 어느새 10개를 채우게 되었네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불편함을 찾아서 이 강의 시간이 고통이 아닌 행복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쪽 분야에 흥미가 많았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찾기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일정

과정	개강일시	교과명	차시	과제마감
기본과정	12/26	미래인문학 미래기술(중등) 지식융합(중등)	12 11 11,12	1/8
심화과정	2011년도 온라인강의 종료			

오프라인교육

◇ 다음일정: 1월 2일~6일(4박 5일)

- 동계집중교육캠프
- 기본과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특허출원, Rocket Pitch
- 심화과정 : TRIZ, Blog & Community, 특허출원, Rocket Pitch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본 교육원은 '미래 기술을 주도하는 창조적 영재기업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사업제안 과정(기본)과 사업예비 과정(심화)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제안 과정은 'Dream the future(미래기술 선견)', 'Discover the future(기술 타당성 탐색)', 'Develop the future(사업 타당성 탐색)', 'Deliver the future(사업 제안)'의 4개의 테마로 운영됩니다.

12월 온라인 교육

대상	프로그램	학습내용	학습기간
1기	기술/사업가치 분석	1년 반 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제안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제안서 초안'을 교육원 내에서 투표 함 선정된 우수 사업제안서 초안을 겨울 집중교육을 통해 구체화하며, 결과물은 기업 CEO 및 벤처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받게 됨	12월 (관련 과제는 홈페이지 참고)
	기업과 정신을 마무리하며	기업가 정신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지금까지의 추천 자료를 다시 살펴 봄	12월 (관련 과제는 홈페이지 참고)
2기	미래기술지도	관심분야에 대한 미래사회의 기술 발전 모습을 미래기술 지도로 구체화해봄	12월 (미래기술지도: 개별 과제 제출기한까지)
	인터뷰	관심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실제 혹은 가상 인터뷰를 실시해봄	11월~12월 (관련 과제는 홈페이지 참고)

12월 오픈 특!

오픈특이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추천 자료를 읽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 것

기본과정 2년을 수료하는 1기 교육생들에게 마지막이 될 오픈특! 지금까지 읽고 본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자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가 가장 큰 추천 자료 및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유는?"

1기 이성화

정말 소중하고 좋은 책들이 많지만 의미가 깊은 것으로 따지자면 바로 "스무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2 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들었습니다. 가장 큰 혼란이 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18 살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전하려고 하는 가치는 지금의 어른들이 강요하는 가치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 이 책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을 보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영재 기업인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도 영재기업인 교육과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저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이 후회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너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에서 새어나오는 긍정적 에너지는 제 생각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기 전하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김현진 님의 "청년 CEO 를 꿈꿔라"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 읽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읽고 있는데 정말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간단한 일에도 포기해버리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명확한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의 크기를 키워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책을 읽은 뒤 올 해 가을학기 오프라인 캠프에서 김현진 님을 만나 강연도 들었는데 그 강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사회성도 커진다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 그분처럼, 아니 모든 CEO 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꿈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이 꿈은 이제 제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 교육 일정

▶ 2기: 2012년 1월 4일(수)~1월 11일(수) / 1기: 1월 11일(수)~18일(수)

▶ 세부 일정 및 준비사항은 공식홈페이지 <http://www.ip-gifted.org/home/> 를 참고하세요.